

# 기아, '2026 봉고Ⅲ' 출시…특장차 3종 추가

기아는 소형 트럭 봉고Ⅲ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6 봉고Ⅲ'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형 봉고Ⅲ는 전방 카메라 개선 등 강화된 기본 상품성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특장차 3종이 추가된 것이다.

먼저 신형 봉고Ⅲ에 탑재된 전방 카메라는 넓어진 화각을 통해 기존 대비 차량 전방의 장애물, 차선, 차량 인식 성능이 향상됐다.

기아는 전방 카메라를 활용해 인식 대상을 기존 차량과 보행자에서 차선과 탑승자까지 추가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한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를 기본 적용 했다. 이에 더해 EV 모델은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기능이 기존 차선뿐만 아

##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본 적용 등 상품성 대폭 개선

## 고객 목소리 적극 반영…소형 상용차 시장 입지 강화

나라 도로 경계를 추가로 인식해 차동이 가능해졌다.

기아는 신형 봉고Ⅲ 1톤 4WD 모델 'GL 라이트' 트림에 '팀티드 글라스' 원드실드를 적용해 기존 대비 단열 및 운전자 시야 보호 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봉고Ⅲ LPG 터보 탑차 및 윙바디 모델의 회물칸 상단부에 기존 대비 약 3배 이상 넓은 신규 LED 조명을 적용해 어두운 환경에서 시인성과 작업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기아는 10.25인치 내비게이

션, 후방 모니터, 풀오토 에어컨, C타입 USB단자,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으로 구성된 선택사항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1.2t 내장탑차, 윙바디, 파워게이트 모델에도 확대 운영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기아는 2026 봉고Ⅲ에 차량 적재 성능을 한층 높인 신규 특장차 3종을 추가해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다.

LPG 터보 모델에는 확장형 윙바디와 냉장탑 파워게이트가 추가됐다.

확장형 윙바디는 기존 전동식 윙바디



기아는 6일 브랜드 대표 소형 트럭 봉고Ⅲ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6 봉고Ⅲ'의 판매를 시작한다. 사진 측면부터 The 2026 봉고Ⅲ 냉장탑 파워게이트, LPG 터보, 확장형 윙바디.

대비 적재길이 280mm 늘려 적재 효

해 손쉽게 화물칸을 출입할 수 있다.

냉장탑 파워게이트는 기존 스텐다드 냉

화장형 윙도어를 60mm, 냉장탑 높이를

80mm 늘여 추가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전

하고, 원터치 슬라이딩 리어스텝을 적용해

동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을 적용한 파워게

이트를 장착해 적재 편의성을 높였다.

또 에어컨과 냉동기 컴프레셔를 분리 적용한 '듀얼컴프 냉동기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냉동 성능을 제공한다.

전기차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하이 냉동탑차는 스텐다드 냉동탑차 대비 탑 높이를 130mm 더 높여 추가 적재 공간을 확보했으며 냉장탑 파워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듀얼컴프 냉동기 시스템과 센터콘솔 내장형 온도조절장치를 적용했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6 봉고Ⅲ는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모델"이라며 "향상된 편의성과 폭넓은 특장 라인업으로 소형 상용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Partnering Human Progress



현대차그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를 주제로 미디어 데이를 열었다.

## "인류 진보 선도"…현대차, AI 로보틱스 전략 발표

CES 2026서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로 피지컬 AI 선도  
사람과 협력 '로보틱스 시대' 선언…“연간 3만대 생산”

현대차그룹이 인간 중심 인공지능(AI) 로보틱스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는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과 AI(인공지능) 고도화를 통해 인류의 진보를 선도하는 'AI 로보틱스' 전략을 공개하면서다.

현대차그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 2026)에서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를 주제로 미디어 데이를 열었다.

이번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은 제조 환경에서 시작되는 인간과 로봇의 협력,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구축하는 AI 로보틱스 생태계, AI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3가지 주요 전략을 발표하고 인류를 위한 AI 로보틱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품 설계 역량을 강화하며 산업 내 핵심 부품 표준화를 통해 AI 로보틱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현대차그룹 AI 로보틱스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넘어 미래 휴먼로보트 기술 개발 기속화를 위해 구글 딥마인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가진

로보틱스 경쟁력에 구글 딥마인드가 보유한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6)을 결합해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부품 인프라를 확장해 로봇 혁신을 주도하고 피지컬 AI 산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그룹사별로 현대차·기아는

제조 인프라, 공정 제어, 생산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현대모비스는 정밀 액추에이터

개발을 담당하며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및

공급망 흐름을 최적화에 나선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보스턴다이나믹스

와 손잡고 아틀라스에 액추에이터를 공급

하면서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에 본격적으

로 진출한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설계 및 양산

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성능 로봇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CES 2026서 갤럭시 북6 시리즈 공개  
프로세서·그래픽·디스플레이·사운드 등 압도적 성능

삼성전자는 극강의 퍼포먼스뿐 아니라 디자인과 생산성까지 갖춘 차세대 PC '갤럭시 북6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시회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2026)'에서 암도적인 성능과 휴대성에 더해 사운드와 그래픽, 배터리까지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6 시리즈'를 선보였다.

'갤럭시 북6 시리즈'는 인텔의 1.8나노미터급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인 18A를 기반으로 개발된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전력 효율과 처리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한편, 별별 제어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최신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갤럭시 북6 울트라'는 고속 AI 이미지 생성은 물론, 생생한 비디오 재생·편집과 물집감 있는 게임 구동을 지원해 한층 향상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와 음향 역시 강력한 성능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

최대 1000nit HDR 밝기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암플리파이 2X 터치 디스플레이에는 줌인, 줌아웃, 문서 스크롤 등 직관적인 사용

성과 실내외 어디에서든 인정적인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비전 부스터와 반사 방지 기술을 적용해 밝은 야외나 강한 조명 아래에서도 화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고성능 하드웨어를 인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열 시스템도 재설계 됐다.

효율적인 열 제어를 통해 소음을 최소화 하며 편안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프로 모델 최초로 갤럭시 북6 프로에도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를 적용해, 울트라와 프로 모델 전반에 걸쳐 열 방출 성능과 소음 제어를 향상시켰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북6 울트라와 프로(16형)는 갤럭시 북 시리즈 중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을 갖춰, 이전 세대 대비 약 5시간 늘어난 최대 30시간의 동영상 재생을 지원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기아 오토랜드 광주, 3년 연속 50만대 생산 돌파

## 스포티지·셀토스·봉고 트럭 주도…누적 1032만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3년 연속 50만대 생산을 돌파했다.

2024년 생산 실적 51만3782대(내수 18만1665대·수출 33만2117대)와 비교할 때 8486대(1.65%) 증가했다.

특히 기아차 전 차종 중 국내외 판매 1위인 스포티지는 2024년보다 1만5323대 늘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첫 전용 전기차인

EV5가 지난해 9월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된 점과 해외 시장 인기 차종인 스포티지·셀토스의 수요에 힘입은 것으로 공장 층은 분석했다.

지난해 실적은 역대 4번째로 2023년 54만1100대, 2014년 53만8896대, 2015년 53만3483대에 이은 기록이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50만대를 돌파하면서 누적 생산량도 1000만대를 넘어섰다.

기아자동차는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19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생산은 1032만대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